

김 정 희

여성학과 감사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MBC드라마 「아들과 딸」은 모든이에게 여러가지 토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후남이와 귀남이를 두고 벌여지는 남녀 성차별의 토론, 가부장적 사회속에서 당연히 인정되었던 아버지의 권위에 관한 토론 등. 이것과 아울러 흥미로운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연이와 후남이의 자매애에 관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대학을 다닌 세대에게 미연이와 후남이의 우정관계가 드라마를 위한 인위적 구성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회변화와 마찬가지로 여성들간의 관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가를 실감케 하였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젊은세대의 여성들이 잃어가고있는 것, 우리에게서 여성들간의 공동체적 우정과 삶을 일굴 힘을 빼앗고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여성들간에 일어난 최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받고나서야 일어서게 되는(아니면 아예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소모전을 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본래 우리문화는 상당히 동성애적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는 남녀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보다는 여자끼리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다 자연스럽게 바라보다. 여성들간의 동성애적

우리사회 자매애의 변천

매애는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만 동서를 만나처럼 부모처럼 여기며 산, 동서지간 속에 존재하기도 했고, 5,60년대 여학교에서 유행하던 여자 선후배간에 의형제 맺기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보면, 미연이와 후남이의 관계는 당시의 실제적인 여자들간의 우정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 의형제나 친형제 이상으로 친한 여자들간의 자매애의 성격이다. 친구는 서로에게 자신을 끌어주는 태양이고 우상이며 자존심이였다. 미연이나 후남이는 가장 힘들거나 우울할 때, 상대방을 떠올린다. 그리고서는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과 우울함을 토로하고 역시 여전히 버티어나갈 것을 상대방에

울 만큼 미팅 문화는 정착한것 같고 이는 그만큼 이성애 중심적 또는 짝짓기식의 남녀관계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는 여자 친구에게 쏘리는 자신을 애써 억제하고 자제했던 경험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어떤가?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다. 좀 예쁘다 싶은 자기 친구는 미팅 주선에서 슬그머니 빼버린다. 여자 친구와는 무의식적 경쟁의식이 있어 속을 털어 놓을 수 없고 오히려 남자 친구가 편하다는 경우까지 나온다.

한 여학생은 『여자는 솔직히 결혼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자 친구와 남자친구 중 남자친구를 선택한다』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동아리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 생활이 끝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라는 어느 여학생의 말처럼, 야망의 20대가 사랑받기 위해 주눅 든 20대가 되가고 있다.

물론 자기 내부의 아르테미스, 아테나 여신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여학생은 이런 짝짓기 관계를

마토)와 같은 영화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의 4, 50대에게 「잊지」와 「루스」의 우정은 별로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매애는 일상의 여자들간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2, 30대의 우리에게 미연이와 후남이의 우정이 극의 구성을 위한 작가의 인위적인 설정으로 비치고 우리도 잊지와 루스의 자매애를(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인양) 회복해야 한다고 감동받는다. 우리가 자매애라는 답을 얻기 위해 서구와 같은 상처받음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자매애를 되돌아보기만 하면된다. 물론 우리의 자매애는 우리 엄마, 할머니의 자매애보다는 더 트인 것이어야 한다. 그 세대의 자매애는 가부장제가 남녀 유별, 분리를 전락으로 하던 시대의 자연발생적인 적응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우리의 자매애는 남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남이 어머니의 삶과 아픔까지도 이해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성 공동의 세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자매애, 「여성공동세력」으로 발전해야

게 맹세한다. 이런 둘의 모습은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찾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두 사람간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다. 이런 여성들간의 자매애는 남자가 나타나고 결혼을 해도 변함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남자는 도구적 상대에 지나지 않는 감마져 있었다. 이것이 지금은 오십안팎이 된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여자들이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여자들간의 우정관계였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 후반의 자매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때쯤이면 미팅을 수 십번 해봐는 애들이 나

1920년 대에 시작하여 근 4, 50년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낭만적 사랑의 문화가 바야흐로 살만해진 한국의 7, 80년대에 주류 여성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려는 조짐인가? 짝짓기 경쟁의 대오에서 혹시나 탈락할까봐 서구 미인형의 외모에 자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여자들은 「성격은 때려 잡아 고칠 수 있지만 외모는 그럴 수 없으니 예쁜 애를 소개해 줘」라고 하는 남성들의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짝짓기에 성공하면 만사형통인가? 「남자친구를 2년 넘게 사귀고 있는데, 그의 시간에 맞춰 패기 좋아하는

청산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짝짓기 문화 속에서 남자도 승자는 아니다. 미팅 나갔다가 들어온 친구에게 여학생은 상대방에 대해 「어떤 사람이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 무슨 과니?」라고 묻는다. 외모를 우선으로 따지는 남자에게 여자는 조건으로 즉 돈벌어 오는 기계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 짝짓기 문화를 참정권 획득 이후 반세기 이상 경험한 서구에서는 그 문화가 남녀, 특히 여성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절감하고 대안을 찾기에 분주하다. 「버려진 아이」 「후남이」 「미연이」